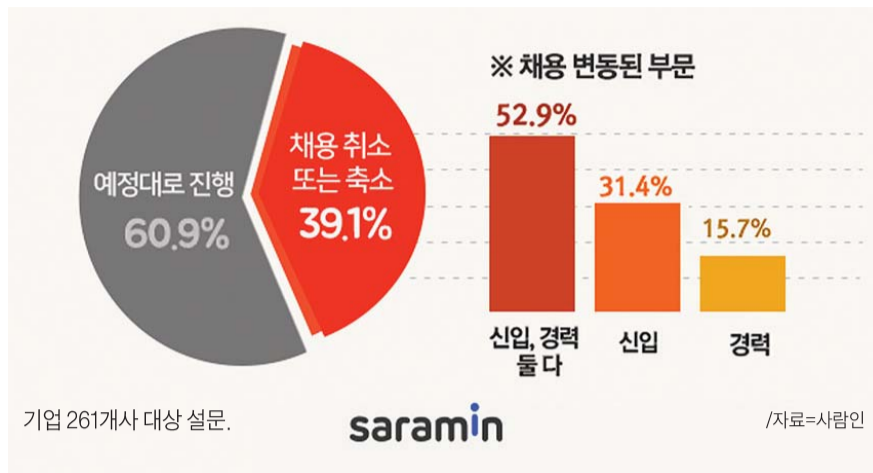


‘불확실성’에 근심 깊어진 상반기 채용시장

기업 40% “채용 줄이거나 취소”

사람인, 기업 261개사 설문

지난해 채용규모 비 12.3%p 줄어 축소·취소 사유 “경영상황 어려워” 경력보다 신입채용 변동비율 높아 “부족한 인력, 기존 인력 부담으로” 하반기 채용 확대 기업 19% 불과



기업들의 상반기 신입 채용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체 채용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기업들의 채용 계획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사람인이 기업 261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채용계획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39.1%가 ‘채용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 보류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12.3%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채용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계획대로 채용을 진행한다는 기업은 60.9%였고, ‘채용 축소’(22.6%), ‘채용 취소’(9.2%), ‘보류’(7.3%) 순이었다.

채용이 변동된 부문(복수응답)은 ‘신입, 경력 둘 다’(52.9%)가 가장 많았고,

‘신입사원’(31.4%), ‘경력사원’(15.7%) 순으로 신입 채용 계획의 변동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축소하거나 취소한 사유(복수응답)로는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서’(53.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서’(35.2%), ‘현재 인력으로 충분해서’(31.5%), ‘업계 전반적으로 침체기라서’(22.2%), ‘회사 매출규모가 줄어들어서’(18.5%) 등 전반적으로 경기불황이 원인이었다.

채용계획 변동으로 인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47.1%)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해당 업무 축소 및 통폐합 등 조직개편’(26.5%), ‘내부 직무순환으로 인력 재배분’(20.6%) 등이 있었다.

주52시간근무가 채용 규모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61.7%)는 기업이 많았으나, ‘채용을 줄였다’(31%)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계획의 불확실성도 높았다. 43%의 기업이 ‘계획 미정이거나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는 기업은 38.3%였고,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8.8%였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업별 면접관이 채용하고 싶은 지원자는

대기업 “기업분석 탁월”... 중소기업 “열정”

잡코리아, 면접관 237명 설문

2순위는 대기업·중소 모두 ‘대인 능력’ 47% “면접만으로 뽑고픈 지원자 있어”

채용시장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면접관 약 절반은 ‘실제 면접 평가만으로 꼭 뽑고 싶었던 지원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잡코리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면접관 237명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만으로 꼭 뽑고 싶었던 지원자가 있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46.8%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대기업 면접관(58.9%)이 중소기업 면접관(39.5%)보다 많았다.

이들 면접관이 뽑은 채용하고 싶은 지원자의 특징(복수응답)으로는 ‘입사열정이 남달리 높아 보이는 지원자’(29.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친화력/대인능력이 높아 보이는 지원자’(28.8%)와 ‘지원한 기업 분석 능력이 탁월한 지원자’(24.3%) 순으로 채용하고 싶었다는 면접관이 많았다.

대기업 면접관이 채용하고 싶은 지원자 특징 1위는 ‘지원 기업 분석 능력이 탁월한 지원자’(20.8%)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친화력/대인능력이 높아 보이는 지원자’(18.9%)와 ‘전공분야 전문지식이 뛰어난 지원자’(17.0%)를 채용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도전정신과 모험심이 강한 지원자’(15.1%), ‘입사열정이 남달리 높은 지원자’(13.2%),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지원자’(11.3%), ‘조직력/협업능력이 뛰어난 지원자’(9.4%) 순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면접관은 ‘입사열정이 남달리 높아 보이는 지원자’를 가장 뽑고 싶었다는 면접관이 5명 중 2명 수준인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화력/대인능력이 높아 보이는 지원자’(37.9%), ‘전공분야 전문지식이 뛰어난 지원자’(29.3%), ‘조직력과 협업능력이 뛰어난 지원자’(29.3%) 순이었다.

이외에 ‘지원한 기업 분석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27.6%), ‘동종업계 인턴/직무경험이 있는 지원자’(19.0%),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지원자’(19.0%) 순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개교 40주년’ 인천대... “세계 100대 대학 사업 박차”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은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가 세계 100대 대학 도전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현재 국립인 인천대는 1979년 사립으로 설립됐고 1994년 시립으로, 다시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변화해 왔다.

인천대는 과거 40년과 미래 40년을 잇는 ‘미래 40년 준비사업’을 출범하고, 인천대 역사를 정립하고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개교 40주년 기념회 등 기념사업도 연중 추진한다.

4월에는 과거 40년 사진첩 제작, 에세이집 제작, 5월에는 대학 축제기간에 40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7월 인천시민과



인천대 본관

/인천대학교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음악제 개최, 한제포럼 개최, 10월에는 민주화 기

념사업, 학술활동 행사 등을 개최한다.

/한용수 기자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지어 ‘인재 채용’

내일부터 전국 순회 합동채용설명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채용설명회를 지역별로 열 예정이다.

충북(3월 20일), 강원(3월 27일), 대구·경북(3월 28일), 울산(4월 3일), 광주·전남(4월 4일), 경남(4월 10일), 전북(5월 29일)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부산지역 합동채용설명회는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과 부산교통공사 등 11개의 지역공공기관 및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 지역 내 12개 대학을 포

함한 지역 인재들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자사의 상세한 신입사원 채용요강을 안내하고 한국남부발전, 부산도시공사 등이 취업성공사례를 소개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도 설명한다.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열린 대화운영, 모의면접 시연 등 채용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소개를 통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협업하는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해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직접 취업 준비생들과 일대일로 상세한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보행안전 ‘엄마손 캠페인’

경찰청이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과 함께 12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뉴시스

장원교육 “‘세이펜 화상영어’ 무료 체험하세요”

종합교육기업 장원교육(대표 문규식)은 오는 4월까지 ‘장원 세이펜 화상영어’ 무료 체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원 세이펜 화상영어는 초등부터 성인까지 개별 실력에 따라 영어회화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어 발음, 문장 말하기, 회화 연습, 생각 말하기, 자유 대화 순으로 연령에 맞는 단계별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장원 세이펜 화상영어는 화상영어 단일 프로그램, 장원 세이펜 영어 학습지가 포함된 프로그램 중 선택 가능하다. 학습지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장원 선생님의 방문 학습으로 진도를 나가고, 이후 원어민 선생님과 온라인 화상통화를 통해 일대일로 학습한 단어, 문장을 대화하면서 체계적인 회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서울대 오늘 ‘33개 유망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서울대는 33개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2019 스타트업 매치포인트’라는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를 13일 오후 1시 교내 글로벌공학교육센터(38동)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로 신생 창업기업을 뜻한다.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관심도 커지

고 있으나 설립 기간이 길지 않은 특성상 창업 준비자 입장에서 안정성이나 경쟁력을 따져보기 쉽지 않다.

이번 박람회는 스타트업 창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전 면접을 신청한 참가객과 현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대한상의, 내일 국제컨퍼런스

한국외대(총장 김인철)는 국제지역대학원(원장 김원호)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 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브라질·멕시코 신정부 주요 경제정책과 한-중남미 협력방안’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및 메르코수르(MERCOSUR)의 주도 국가인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컨퍼런스에서는 멕시코와 브라질의 싱크탱크 연구기관과 국제경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양국 전문가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